

해외 유명감독 신작부터 각종 영화제 수상작까지

초여름 취향대로 골라보는 '영화 선물세트'

● 6월 광주극장 개봉작

현존 국내 유일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이 초여름 다채로운 영화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사랑하는 당신에게'·'그 여름' 등 상영 오는 11일 '스프린터' 감독·배우 만남도



◀사랑하는 당신에게

6월 첫째날 개봉한 영화 '사랑하는 당신에게'는 먼저 떠난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대 무용단에 입단한 제르맹이 상실을 계기로 새로운 관계와 경험에 눈뜨게 되는 모습을 사랑스럽고 유쾌하게 다루고 있다. 현대 무용,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등 풍성한 소재와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어우러진다. 10대부터 60대 이상의 관객을 두루 섭렵하며 제75회 로카르노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7일 개봉한 '그 여름'은 열여덟여름, 갈색 눈의 평범한 학생 '이경'이 고교 축구선수 '수이'를 만나 새로운 감정에 눈뜨게 되는 성장 로맨스다. 2017년 젊은작가상 수상작이자 최은영 작가의 베스트셀러 '내게 무해한 사람'에 실린 동명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이다. 서정적인 스토리에 한지원 감독의 감성적인 연출, 선우정아, 정우가 참여한 감성적인 OST까지 이 계절에 어울리는 싱그럽고 풋풋한 느낌을 선사한다.

오는 14일에는 2022 제96회 키네마준보 시상식에서 일본 영화 대상을 받은 작품 '나의 눈을 들어다보면'이 개봉한다. 선천적 청각 장애를 가진 프로복서 케이코가 혼란과 고민 속에서도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담은 영화다. 미야케 쇼 감독이 16mm 필름 위로 청각 장애를 가진 프로복서 케이코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그려낸 이 작품은 제72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에서 프리미어 상영되며 큰 호평을 받았다.

같은 날 개봉하는 영화 '위대한 작은 농장'은 각박한 L.A. 도시를 떠나 버려진 황무지를 자연과 공존하는 기적의 농장으로 일궈낸 제스터 부부의 8년간의 경이로운 체험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제43회 토론토국제영화제, 제35회 선댄스영화제 등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다. 전통 자연농법으로 농장을 운영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과 자연의 무한한 힘, 사랑스러운 생명들,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화다.

영화 '수리'는 오는 21일 스크린에 오른다. 20년간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관계', '생명'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온 황윤 감독의 여섯 번째 작품이다.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 '수리'의 시간과 사람, 생명을 7년 동안 기록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갯벌의 아름다움을 시네마틱한 촬영과 섬세한 사운드로 구현한 다큐멘터리다. 기억할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지는 세상 속 기억과 기록이 가진 힘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이 영화는 갯벌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경이로움, 시간의 숭고함을 오롯이 담아냈다.

제76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분에

초청된 영화 '에스터로

이드 시티'는 28일 개봉한다.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아름다운 색채로 할리우드 대표 비주어리스트 감독으로 손꼽히는 웨스 앤더슨의 신작이다. 가상의 사막 도시 '에스터로이드 시티'에 모인 이들이 우연한 사건으로 도시에 격리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제이슨 슈왈츠만, 에드리안 브로디 등 기존 웨스 앤더슨 감독 사단 배우들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배우 톰 행크스, 스칼렛 요한슨, 마고 로비 등 화려한 캐스팅도 눈길을 끈다.

영화 '스프린터' 감독과 출연배우를 만날 수 있는 '관객과의 대화'도 오는 11일 오후 2시50분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각본·연출·음악 1인3역을 해낸 최승연 감독과 날렵한 고교생 선수를 보여주기 위해 61kg까지 감량하는 투혼을 불사르며 10대 유망주 '준서'를 연기한 임지호, '준서'의 국대 출신 육상부 코치 '지환' 역을 맡은 전신환 배우가 참석한다. '스프린터'는 단거리 육상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통해 서로 다른 꿈과 현실, 이상이 다르더라도 목표를 향해 오늘도 조용한 노력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를 응원하는 영화다.

상영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극장 네이버카페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062-224-5888. /최명진기자



그 여름



위대한 작은 농장



나의 눈을 들어다보면

“여행을 일상처럼”...

광주관광재단 '여가관광학교'



어린이·택시운전사 등 교육

광주관광재단과 광주시가 광주관광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생활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여가관광학교'를 운영한다.

광주여가관광학교는 광주를 여행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택시운전사를 비롯해 초등학생, 광주시민 등 대상별 맞춤형 강의와 현장 체험투어를 통해 지역 명소를 재발견하고 일상 여행의 기회를 제공한다.

재단은 세계기록유산(5·18민주화운동기록물), 세계지질공원(무등산권지

질공원), 유네스코 창의도시(미디어아트플랫폼) 등 문화·예술·역사·생태적 가치를 교육하고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테마별 5개 코스를 개발했다.

특히 올해는 미래 관광시민으로 자리날 초등학생 교육에 주력한다. 광주 시교육청과 협력해 이달 말까지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으로 2개 초등학교 1천700여명을 교육한다.

오월의 기록, 미디어아트, 무등산, 비엔날레 예술여행, 양림동 공목미술관 등 5개 코스를 중심으로 만나질 학습 후 테마별 또다른 장소를 방문하는 사

후여행 연계까지 효과를 확산시킨다. /최명진기자

무등산 자락 신명나는 타악 한마당 열쭙~!

내일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10일 너털마당에서 지역 국악단체 타악그룹 열쭙을 초청해 '뿌리깊은 나무' 공연을 펼친다.

타악그룹 열쭙(사진)은 인수화풍, 광주국악상설공연 공연마루,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등 활발한 국악공연을 펼치는 지역 국악단체다.

출연자는 ▲고창길(연출,장구) ▲박은비(판소리) ▲김대선(쟁과리) ▲김지은(모듬북) ▲황인상(모듬북) ▲김보람(신디) ▲조한(가야금) ▲이명운(대평소) ▲노준영(핸드판, 대북) 등이다.

공연 '뿌리깊은 나무'는 나무의 뿌리가 전통음악이 되고, 수많은 가지처럼 다양한 예술장르와의 크로스 오버가



가미돼 있다는 뜻이다.

전통에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다양한 재미와 화려한 볼거리를 구성해 무등산 자락을 찾는 시민들에게 신명난 타악 한마당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명진기자

“소나기도 안심”...ACC, 우산 임시 대여 서비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예상치 못한 소나기와 무더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우산 임시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ACC는 ▲방문자센터 ▲문화창조원 ▲아시아문화박물관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안내데스크 등에 우산 150개를 비치했다.

방문객은 ACC 내 안내대를 찾아가 성명과 전화번호만 기재하면 우산을

일주일 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대여 받은 우산은 일주일 이내 안내대에 반납하면 된다.

이강현 전당장은 “우산 임시 대여는 고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전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고객 서비스의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챙겨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

